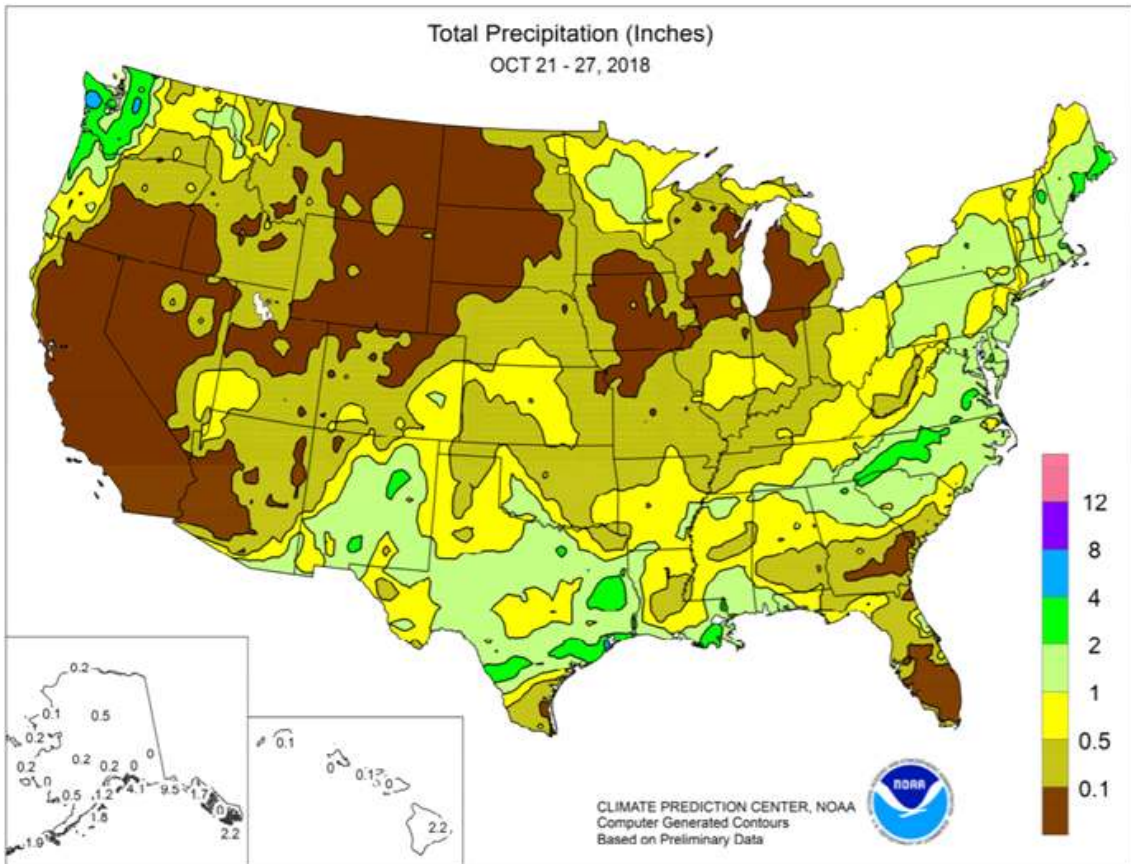


10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44)

□ 미국 기후 현황(10/21~10/27)

중부와 북부, 중서부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는 비가 내려 로키산맥 고지대에도 눈이 제법 쌓였다. 로키산맥 남부 지역에서도 비가 조금 내렸지만, 그 밖의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한편, 남부, 동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5°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였다. 남부 일대에서는 허리케인 Willa가 소멸하고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 걸프만 연안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서양 연안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주 후반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10/22~10/28)

허리케인 Willa가 소멸하고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플로리다 남부에서부터 서부에 이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지만,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4°F 이상 낮았다. 앞서 언급한 대서양 연안 등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10/21~10/27)

■ 유럽: 오랫동안 북유럽 일대에 자리하고 있던 고기압이 물러났다.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10~8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이들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주 내린 비를 고려하더라도, 독일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지난 60일 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10~8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스페인에서도 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10~1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러시아 남부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비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정도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10~25mm, 남부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한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일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밀 수확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 및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 밖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서부와 남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높았고, 동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 아르헨티나: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La Pampa, Buenos Aires 서부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의 주요 면화 재배지역인 Santa Fe, Chaco, Formosa 등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Entre Rio, 우르과이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중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2°C 정도 낮았고, 낮 동안에는 최고기온이 20~30°C까지 오르내렸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옥수수의 파종률은 38%를 기록했고, Buenos Aires에서는 옥수수 파종률이 54%를 기록했다.



- 브라질: Mato Grosso와 Rio Grande do Sul, Minas Gerais, Bahia 등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Mato Grosso del Sul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오르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59%, 90%를 기록했고, 밀의 수확률은 77%를 기록했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10월 25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이 3%를 기록했다.